보 도 해 명 자 료
('18. 11. 1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: "원전 가동 늘려… 한전 3분기엔 흑자"(조선)
"원전 가동률 높였더니 한전 흑자로"(서경)

---

1. 보도내용

□ 탈원전 정책으로 금년 상반기에 8,14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이 3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섬

□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

○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가동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(LNG)와 석탄발전을 늘렸는데, 국제 연료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

□ 한전이 3분기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던 이유는 비용이 가장 싼 원전 이용률이 높아졌기 때문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<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상반기 적자 >

□ 정부의 '탈원전 정책'으로 올해 상반기에 8,14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○ 한전의 상반기 적자는 유가 등 연료비 인상이 주된 원인이며,

* 국제연료가 ('17. 상반기 → '18. 상반기):
(두바이) 51 → 68$/bbl, (유연탄) 81 → 104$/톤, (LNG) 12.4 → 13.5천원/GJ

○ 격납건물 철판 부식, 콘크리트 공극 발견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했던 원전의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임

* 격납건물 철판(CLP; Containment Liner Plate) 부식 발견 원전 총 9기, 콘크리트 공극, 철근 노출 등 발견 원전 총 11기

○ 특히, 원전 안전점검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

< '18.3분기 흑자로 돌아선 것은 원전이용률이 높아졌기 때문 >

□ 한전의 3분기 흑자는 계절적으로 3분기 수익이 크게 개선된 것이 주된 원인임

○ 통상 3분기는 여름이 포함되기 때문에 판매단가가 높고 판매량도 늘어나 다른 분기에 비해 약 2~3배 정도 영업이익이 커지게 됨

* 최근 5년간 분기별 평균 영업이익(조원): (1Q)1.8, (2Q)1.1, (3Q) 3.2, (4Q) 1.0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(044-203-5260)
조영길 사무관(044-203-5261)